

도시민과 공무원의 도시농업 인식 비교

박원제* · 구분학** · 박미옥*** · 권효진*

*상명대학교 대학원 환경자원학과 · **상명대학교 환경조경학과 · ***나사렛대학교 에코그린센터

I. 서론

우리나라 도시화율은 1970년 40.7%에서 2008년에는 도시지역 인구기준 90.5%로 2배 이상 증가했다(통계청 국가통계포탈, 2011). 이러한 도시화로 인한 농지면적은 감소되었지만, 아파트, 연립 등 공동주택과 건물의 옥상을 대체농지로 활용하여 농지확보로 인한 도시농업의 부지확보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도시농업은 도시지역에 있는 토지, 건축물 또는 다양한 생활공간을 활용하여 농작물을 경작하는 행위로서 도시에 나타나는 녹지부족, 환경오염 등 도시문제의 해결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즉, 도시 내 농업은 지속가능한 도시의 주요한 구성요소로 간주되어 현재 전 세계적으로 도시의 생태적인 재생과 안전한 먹거리 확보, 도시민의 여가활동 등을 위하여 도시농업이 활성화되고 있다(America Community Garden Association).

전 세계적으로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자연속에서 여가와 휴가를 즐기려는 도시민의 욕구가 커지고 이러한 공간으로서 독일의 분구원, 미국의 커뮤니티 가든 및 로커보어(loca vore) 등과 같은 소규모 도시텃밭이 확대되는 추세이다. 영국의 얼로트먼트(Allotment), 일본의 시민농원, 독일의 클라인가르텐(Kleingarten) 등 선진국에서의 도시농업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며 매우 활발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국가 및 지자체마다 도시농업 관련 사업을 추진 혹은 계획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2011)는 'Green 도시농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여 2020년까지 주말농장 8,000개소, 유휴공간에 도심텃밭 7,200개소를 조성해 녹색공간을 확보하고, 도시농업에 대한 인식전환을 통해 도시농업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한, 서울시는 하이서울 친환경농장, 주말농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택가 주변 자투리 땅, 건축물 옥상 등을 활용하여 도시 내에서 도시농업 경작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국내 도시농업 관련 연구로는 최승(1988)이 도심쇠퇴 현상으로 발생한 도시 내 공지문제의 방안으로 도시농업의 도입 적용가능성을 제시하였고, 강기남 등(2007)은 텃밭을 중심으로 한 녹지활용방안, 장동현과 소순열(2005) 및 장동현(2009)은 도시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였다.

또한 문형섭(2003)은 도시 내 자투리땅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나영은(2010)은 에너지 자립의 관점에서의 도시농업, 김미향(2011)은 도시내 공지를 활용하여 커뮤니티 가든을 조성하기 위한 방법론 등을 각각 연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분위기에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도시농업의 필요성 및 향후 관리 및 활성화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적정규모를 통해 도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도시농업녹지의 공급이 미흡한 상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도시농업의 개념과 효과에 관하여 간략하게 살펴보고, 도시민과 공무원 인식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도심 내에서 적용 가능한 도시농업유형 파악과 공원녹지, 시유지 임대에 관한 두 집단의 인식의 차이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도시농업과 관련한 정책실행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도시농업의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II. 연구 방법

1. 도시농업의 개념 및 유형

일반적으로 도시농업은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의 도시농업은 도시지역에 있는 토지, 건축물 또는 다양한 생활공간을 활용하여 농작물을 경작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거주지 근처나 도시 근교에 위치하며 채소류나 관목형의 과수, 꽃식물 등을 가꾸는 일반적인 도시생활원예의 한 형태로써 본 연구에서는 텃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도시농업은 공간적으로 도시 내에서 도시민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농업으로써 목적, 범위, 대상, 활동주체 등에 다양한 형태가 나타나고 있으며, 토지사용형태에 따라 도심지에서 활용 가능한 자투리 땅과 건물 옥상 및 실내공간, 주말농장, 도심지 유휴공간에 텃밭상자를 설치하는 형태도 확산되고 있다.

2. 연구방법 및 내용

본 연구의 방법과 내용은 첫째, 문헌연구를 통해 도시농업의 개념, 효과, 재배유형, 정책적인 방향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둘째, 본 연구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도시농업에 관한 설문조사를 2011년 8월에 실시하였다. 본 설문은 이용자인 도시민과 공무원의 도시농업에 대한 인식비교 연구이므로 조사대상자를 두 집단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즉, 서울시 구로구청에서 운영하는 시민농원(텃밭)에 실제 참여하고 있는 도시민 100명과, 도시농업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경기 조경직 공무원과 각 도 농업기술원,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근무하는 공무원 50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설문의 주요 내용은 도시농업의 효과, 재배장소의 만족도, 조례 제정 여부, 활성화를 위한 정책수단 등이었으며, SPSS 12.0 프로그램을 통하여 최종데이터를 분석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조사자의 일반적 특성

1) 참여 도시민

참여 도시민의 일반적 특성을 성별, 연령대, 직업,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 주거형태로 살펴본 특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성별 구성은 총 100명 중 남성 57%, 여성 43%으로 남성이 약간 많았다. 다음으로 연령대를 보면, 연령분포는 20대에서 70대 이상까지 각 연령별 6단계로 20대 1%, 30대 13.1%, 40대 23.2%, 50대 32.3%, 60대 20.2%, 70대 이상 10.1%로 50대의 응답자가 많았다.

거주지역은 서울 97%, 경기 및 기타지역 3%로 서울이 대부분이었으며, 거주기간은 5년 이하 22%, 5-10년 31%, 10-15년 17%, 15-20년 6%, 20년 이상 24%로 5-10년 거주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응답자의 직업별 구성비를 보면, 회사원 22.6%, 공무원 15.5%, 자영업 19%, 전문직 6%, 주부 32.1%, 프리랜서 1.2%, 기타 3.6%로 직업별로 보면 주부의 비중이 많았다. 거주하는 주거형태는 아파트가 70%로 가장 많았으며, 단독주택 15%, 빌라 13%, 연립주택 및 기타 각각 1%의 순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2) 담당 공무원

담당 공무원의 일반적 특성을 성별, 연령대, 근무부서 및 직급, 근무연수, 도시농업 담당경험으로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성별 구성은 총 50명 중 남성 78%, 여성 22%로 여성보다 남성이 많았다. 연령대는 20대 4%, 30대 24%, 40대 28%, 50대 44%로 50대의 응답자가 많았다.

근무부서는 서울시·구청 66%, 경기 및 기타지역 20%, 농업기술센터 14%의 순으로 서울시·구청이 높았으며, 직급은 기능직 2%, 9급 6%, 8급 10%, 7급 32%, 6급 32%, 기타 6%로 7급과 6급의 비중이 높았다.

근무연수는 5년 미만 14%, 6-10년 6%, 11-15년 12%, 16-20년 10%, 20년 이상 56%로 20년 이상 근무자가 가장 많았다. 도시농업과 관련하여 담당경험은 있다 50%, 없다 44%, 결측값 6%로 '있다'라고 대답한 응답자가 약간 많았다.

2. 도시농업의 유형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도시민과 공무원의 인식비교

표 1에서 참여 도시민은 어린이놀이터, 근린공원 등의 공원 14%, 주택가 주변 산림 훼손지 13%, 개인주택의 마당 및 화단, 건물의 옥상 각각 11%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도시 내에서 도시농업을 하기에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장소로 어린이놀이터, 근린공원 등의 공원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담당 공무원은 건물의 옥상 20%, 공동주택 내 녹지 15%, 어린이놀이터, 근린공원 등의 공원 11%의 순으로 선호하였다.

도시민과 공무원 모두 국가나 시의 공공녹지 또는 도시민의 거주지역과 근접지역을 도시농업 활용가능공간으로 사용되는

표 1. 도시농업의 유형별 선호도 차이 (단위 : 명, %)

구분	도시민		공무원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아파트 베란다 및 발코니	4	4	1	1
개인주택의 마당 및 화단	11	11	4	9
건물(상업건물, 일반주택)의 옥상	11	11	10	20
공동주택(아파트, 맨션, 빌라 등) 내 녹지	8	8	8	15
공공기관(관공서) 내 녹지 또는 화단	6	6	2	4
학교 운동장 옆 공터	3	3	1	2
학교 건물의 옥상	2	2	5	9
주택가 주변 공터 (자투리땅, 유휴지)	3	3	2	5
어린이놀이터, 근린공원 등의 공원	14	14	6	11
수변녹지(하천변녹지)	2	2	1	3
도로주변녹지	4	4	1	1
그린벨트(산림지의 유휴지)	2	2	0	0
주택가 주변 산림 훼손지 (현재 불법경작지 포함)	13	13	3	5
공원녹지(분구원)	7	7	2	5
생산녹지(농지)	2	2	1	2
기타	7	7	3	7
결측 값	1	1	0	1
합계	100	100	50	100

표 2. 공공녹지 일부를 텃밭으로 조성해 임대하는 것에 대한 인식 (단위 : 명, %)

구분	도시민		공무원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매우 좋다	58	58	26	52
좋다	40	40	17	34
모르겠다	1	1	3	6
좋지 않다	1	1	3	6
매우 좋지 않다	0	0	1	2
합계	100	100	50	100

표 3. 정책실행에 있어서 문제점에 관한 인식 (단위 : 명, %)

구분	도시민		공무원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인력부족	3	3	9	18
예산부족	40	40	12	24
정책 시행의 의지부족	22	22	10	20
담당자의 전문지식 부족	14	14	4	8
관련단체 및 기관의 부재	2	2	4	8
시민 관심부족(홍보부족)	13	13	9	18
기타	1	1	2	4
결측값	5	5	0	0
합계	100	100	50	100

것에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도시 내 공원녹지나 사유지의 녹지 일부를 텃밭이나 농원으로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임대해 주는 것에 대하여 시민들의 의견은 매우좋다 54%, 좋다 46%로 대다수가 찬성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 반면 공무원들도 응답자의 86%는 찬성의 의견이었으나, '좋지않다', '매우 좋지않다'가 각각 6%, 2%를 차지하였다. 반대하는 이유로는 녹지훼손과 공공성 상실을 근거로 공원이나 사유지의 녹지이용을 규제하여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표 2 참조).

한편, 현재 각 일부 지방자치체, 시민단체, 개개인에 의하여 도시 내 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례 제정과 다양한 지원 정책 등이 진행되고 있다. 도시 내 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례 제정과 다양한 지원 정책 등을 실행하는 있어서 도시민(34%)과 공무원(24%) 모두 공통적으로 예산부족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선택하였고, 다음으로 정책 시행의 의지부족이었다. 도시민의 경우 담당자의 전문지식 부족(18%), 공무원은 홍보부족으로 인한 시민들의 관심부족(18%)이 3순위로 도출되었다(표

표 4. 도시농업의 활성화 방안 (단위 : 명, %)

구분	도시민		공무원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텃밭(주말농장)이나 농업공원 등 녹색공간 확충	85	85	17	34
도시빌딩 녹화 및 식물 생산공장 산업화	5	5	3	6
도시농업 인프라 구축(법제정 및 기술개발 인력양성 등)	3	3	22	44
도시 농업 관련단체 육성 및 지원	3	3	3	6
시민대상 홍보 및 시범사업	3	3	5	10
결측값	1	1	0	0
합계	100		50	100

3 참조).

끝으로 향후 도시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추진해야할 정책에 대해서는 도시민의 85%가 텃밭이나 농업공원 등 녹색공간을 확충해야 한다고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공무원의 경우, 도시농업 인프라 구축 44%, 텃밭이나 농업공원 등 녹색공간 확충 34%의 순이었다(표 4 참조). 기타 추가 의견으로 전문관리인 배치, 텃밭을 국가에서 일정량 비축해둬다가 후일 판매하는 방법, 농장관리를 소홀히 하는 이용자 확인 후 도시농업을 하고자 하는 도시민에게 일선 권장 등의 의견이 있었다.

IV. 결론 및 제언

이상과 같이 본 연구에서는 도시농업에 참여하고 있는 도시민과 도시농업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의 인식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도시농업의 유형별 설문조사에서 도시민은 어린이 놀이터, 근린공원 등의 공원, 공무원은 건물의 옥상을 향후 도시농업 활용공간으로써 가장 선호하였으며, 두 집단 모두 공공녹지의 사용을 긍정적으로 생각하였다. 따라서 공공녹지 일부를 텃밭으로 조성해 임대하는 것에 대한 질문에서 도시민과 공무원 모두 대다수가 찬성의 입장을 보였으나, 공무원 중 일부는 녹지 훼손과 공공성 상실의 이유로 일부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다.

도시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실행에 있어서는 도시민(34%)과 공무원(24%) 모두 공통적으로 예산부족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선택하였고, 우선적으로 추진해야할 정책에 대해서는 도시민의 경우, 텃밭이나 농업공원 등 녹색공간 확충이 86%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공무원의 경우 도시농업 인프라구축(44%), 텃밭이나 공원농업 등 녹색공간 확충이 34%로 그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현재 도시농업은 일부 지자체, 시민단체, 개인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도시농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국가적 차원에서 도심 내 공간을 고려하여 경작공간을 마련하고, 그 사용이 지속되도록 제도적인 차원 및 기술적 차원에서 뒷받침해주어야 한다. 또한, 도시농업에 참여하지 않는 도시민의 흥미를 일으킬만한 프로모션 활동이 수반되어야 한다.

끝으로 도시농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적인 측면에서의 접근뿐만 아니라 생태지향적 측면에서도 도심 내 도시농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정책의 모색과 실천이 추진되어야 한다.

인용문헌

1. 강기남, 이종근, 김기황, 이만형(2007) 텃밭을 이용한 도시농업의 활성화 방안. 충북대학교 건설기술연구소 건설기술논문집 26(1): 167-176.
2. 김미향(2011) 도시내 공지를 활용한 커뮤니티가든 모델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3. 나영은(2010) 에너지 자립을 위한 도시농업 활성화 추진정책 방안. 한국환경농학회지 29(3): 304-308.
4. 농림수산식품부(2011) Green 도시농업 활성화 방안.
5. 문형섭(2003) 도시 내 자투리땅 활용 방법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석사학위논문.
6. 장동현(2009) 도시농업 육성의 정책적 함의. 산업경제연구 22(2): 979-994.
7. 장동현, 소순열(2005) 도시농업의 경영형태 변화에 관한 연구: 서울시농업을 사례로. 전북대학교 농대논문집 제36집, pp. 86-102.
8. 최승(1998) 도시농업을 이용한 공한지의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9. <http://kosis.kr/index/index.jsp>
10. <http://www.communitygarden.org/>